

가야금 산조의 본향 영암서 남북 아우르는 감동의 만남

김창조 선생 서거 100주년 행사



영암군에서는 지난 9일 가야금 산조기념관 실내공연장에서 가야금산조의 미래, 서로 이야기 나누기란 주제로 “가야금산조 남과 북 100년의 만남”이 KBS 광주방송 특별공연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김창조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가야금 산조의 본향 영암에서 열게 된 아주 특별한

공연으로 김창조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가야금 산조의 흐름을 좇아가는 공연이자 분단 70년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변용과 발전을 거듭해 온 가야금산조와 그 즐기들을 만나는 특별공연이었다.

특히, 김창조 선생님과 손녀딸 김죽과 선생님의 혼이 담겨 있는 김죽과류 가야금산조가 인간문화

재 양승희 선생과 인간문화재 일통 김청만 선생님의 장단을 통해 울려 퍼지며 격조와 품격이 느껴지는 연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북으로 건너가 북한의 국악사를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안기옥 명인이 1957년에 작곡한 기악곡인 ‘새봄’을 북한의 가야금 연주자 김계옥 선생의 가야금 명인의 고향인 나주시립국악단의 가야금 연주자 오찬미·공탑나씨가 연주를 하여 남과 북의 동질성과 개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인간문화재이자 명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가야금산조를 통해 남과 북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공연이었고, 품격 높은 우리의 전통음악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유자 본격 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 전망



완도군의 특화작목인 완도자연그대로 유자가 11월 6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본격 수확, 유통되고 있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2,900톤으로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완도농협에서는 11월 15일부터 유자 상품을 1kg에 3,200~3,700원, 중품은 2,000~2,500원, 하품은

1,300~1,500원에 수매할 예정이다. 유자는 비타민B와 비타민C, 유기산 등이 풍부해서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거나 피부 미용,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완도 유자는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더불어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향기와 빛깔이 좋고 맛도 뛰어나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완도자연그대로 친환경 유자 생산을 위한 기

반 시설을 구축하고, 유자 가공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유자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동해 증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두꺼운 부직포, 볏짚, 방수 보온재, 고무 밴드 등 방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세 유지를 위해 과다 결실을 방지, 병해충(꿀 응애)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 대책으로는 고사된 가지를 잘라내고 자른 부위에 도포제를 발라 수분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수피가 갈라진 경우 노끈이나 고무 밴드 등으로 묶어 건조 방지, 도포제를 발라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61-550-5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이승욱 강진군수, ‘제8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대상’ 수상



이승욱 강진군수가 제8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대상의 ‘지역문화발전’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

고, 지제이씨홀딩스(주)와 글로벌 자랑스런세계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국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와 개인의 사회 기여도와 공헌도,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군수는 ‘강진산단 100% 분양’을 조기에 달성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등 우수한 균형 운영 능력으로 대한

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문화발전’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민선7기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를 신선히하고 민간투자유치위원회 발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시키고 기업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16.4%에 머물러 있던 강진산단 분양률을 취임 1년 만에 100%로 향상시키며 임기 내 분양 완료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군, CCTV 추가설치...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장성군이 관내에 방범용 CCTV 24대를 추가 설치한다. 군은 빠른 11월까지 설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1년 전남 최초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장성군은 그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용, 연 평균 130여 건의 사건·사고를 포착하는 등 치안을 확보하고 주

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 3월에는 2017년부터 추진해온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완료, 안전취약지역 41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현재 장성군에는 총 711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장성군은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시티 장성의 최대 목표인 군민의 행복은 안전이 바탕 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며 “장성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장흥목공예협회, 우드랜드 말레장터 운영



장흥목공예협회는 지난 9일 편백숲 우드랜드 전남목공예센터 입울대 광장에서 ‘우드랜드 말레장터(Art Market)’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우드랜드 말레장터는 장흥목공예협회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후원했다.

다양한 공예품들이 외부 셀러로 초청돼 장흥군 목공예 및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장흥목공예협회 회원들은 직접 제작한 수공예 물품, 도마, 장신구, 우드펜, 화병 등을 전시 판

매했다.

외부 셀러로 초청된 대나무공예, 수공예, 한지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품들을 선보였다.

위성읍 장흥목공예협회장은 “이번 행사는 기회부터 홍보, 모든 것이 목공예협회 및 수공예 작가들이 주체가 돼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라 의미가 있었다”면서 “장흥군의 우수한 공예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라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목재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장흥군의 목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목공

예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사 추진을 통해 공예산업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흥목공예협회는 이번행사를 통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폴리마켓 활성화 및 목재문화 페스티벌로 발전과 지역 내 목재문화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가 ‘제8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대상’의 ‘지역문화발전’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최하고, 지제이씨홀딩스(주)와 글로벌 자랑스런세계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국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와 개인의 사회 기여도와 공헌도,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군수는 ‘강진산단 100% 분양’을 조기에 달성하고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등 우수한 균형 운영 능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문화발전’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